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6/ 2 통권 1521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깨끗해야 번영한다

K반도체 전략 중 세제지원 내용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실제기장신고·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신고서 종합소
득금액 계산사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사무용품 등은 소모품으로
반영후 결산시 소모품비로 대체한다
- K-반도체 전략중 세제지원 내용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명 2차 세무
조사 착수
- 신종 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남은 구성원이
지분을 그대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
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청년들이여 바늘구멍 취업은 유한하지만 열린 창업은 무한한 10특성 >

개념구분	기존회사, 공 · 사기업, 직장내 취업	신규사업, 창업 및 기술개발
개인특성	기존 조직, 회사규칙, 주변 동료에 맞춤	자신의 기대와 방향으로 차별화 삶
취미 선호	자산을 버리고 조직과 융합해야 성장	자기고유 취미, 선호, 희망사항 유지 가능
진입장벽	입사시험, 자격증 취득, 수험생활, 경력증명	자영업, 나홀로 전공정 담당
존속기간	신입사원 입사, 승진경쟁, 퇴임, 명퇴 (30~55살 : 길어야 25년)	자신의 사업방식에 만족(정년 없음) (30~70살 : 40년 이상)
물적자본	입사시험과 면접 등 최소비용	장소임차, 시설구입 등 (유통, 서비스, 플랫폼은 적게 소요)
인적자원	본인 교육+상급자 보고+하급자 지도	본인의 능력, 기술, 경력, 개발
광고홍보	회사, 조직이 매체광고 수행	본인의 SNS활용 (과거보다 부담 없음)
성과보수	본인 창출 성과의 일부 귀속, 팀별 배분	사업자 창출성과 전액 귀속
사업성격	대규모 설비, 다수인력 필요(제조업, 첨단설비, 플랫폼 기업)	1인기업(유통, 도 · 소매, 온라인 판 매, 인적서비스, 지식전달, 유튜브 등)
가족승계	승계 불능, 가업 없음	전액승계, 가업유지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21 호 / 주간 22호

2021. 6. 2.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문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청년들이여 바늘구멍 취업은 유한하지만 열린 창업은 무한하다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부자아빠가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세·양도 등 높은 세금으로 모두 막 힌 경우 탈출구인 증여절차와 세금 checklist 10가지	2
C E O 에 세 이	깨끗해야 번영한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터널 등기구 교체건에 대한 처리 - 산업시설 구축지연에 따른 세액감면 환수부분 -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회계처리 기준 문의드립니다 - 배당소득세 지급시기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사무용품 등은 소모품으로 반영후 결산시 소모품비로 대체한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증과세율 - OECD평균과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규모 및 구성비중('18 기준)	9 10
직 장 인 Survival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방법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 실질적 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인-4314, 2020.05.26) - 중소기업이 고용중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사전법령법인-1010, 2020.11.27)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D-7' 근로·자녀장려금... 31일 넘기면 장려금 10% 삭감	14
마케팅 Tax consulting	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남은 구성원이 지분을 그대로 취 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12
세 무 정 보	- K-반도체 전략중 세제지원 내용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15 18 31
노 무 정 보	-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 택을 누리세요	44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17

부자아빠가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세 · 양도세 등 높은 세금으로 모두 막힌 경우 탈출구인 증여절차와 세금 checklist 10가지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구체적 방법, 요건, 규정, 상황
1. 진퇴양난	취득세 8%, 12% 등,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 양도소득 중과세 일반세율 +20% 추가적용
2. 증여물건	아파트(실제거래시세 공시), 상가건물(국세청 고시가), 일반건물(토지공시가+건물과세시가) → 아파트의 국세청 고시가격이 제일 높게 형성됨
3. 수증자 분산	다단계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록(부모 → 자녀, 배우자, 손자녀 등) 낮은세율 • 전세금, 차입금 낀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별도 분류 과세됨
4. 증여공제	10년 단위 직계존비속(자녀, 부모 등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인척 1천만원
5. 증여신고	증여받은 날(재산등기 ·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임
6. 증여취소	금전 이외 :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내 반환시 비과세, 6개월내 반환시 당초 증여만 과세, 6개월 지나서 반환시 당초 증여도 과세, 반환도 증여세 과세
7. 증여세율	증여공제 후 1억원까지 10%, 1~5억원 :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는 50%,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과세 30%(미성년자로 재산가액 20억 초과시 40%)
8. 세액공제	① 10년내 선증여의 통합 합산후 선납세액 차감, ② 후증여의 최종 산출세액 × 3% 신고 세액공제
9. 분할납부	2천만원 초과시 2개월내 나머지 50%납부 가능,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2달내 나머지 금액 납부
10. 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 신청+담보제공(5년 이내 연단위 1천만원 초과로 안분+연 1.8%의 이자 해당액 납부)

깨끗해야 번영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트러스트(신뢰)'의 저자인 미국 조지 메이슨대학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정치학교수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거짓이 난무하고 신뢰가 없는 사회'가 경쟁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늑대가 왔다!'고 마을사람들을 속이며 장난치던 양치기소년의 우화는 거짓의 결과가 결국 파멸임을 일깨워준다. 미국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미국 국부인 '워싱턴대통령의 정직'을 배운다.

한국은 어떨까. 5.16구테타후 박정희장군은 '정권이양약속'을 뒤집고 집권했다. 백담사로 오가며 감옥까지 들락거린 전직대통령들은 수천억원의 비자금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세탁(?)된 만원짜리 현찰이 가득 담긴 거액의 사과박스 무더기를 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할맛을 잃었을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90개국중 33위에 그쳤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역대 최고 점수라지만 공직자의 부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서구선진국은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보다 뒤쳐진 상태다.

한국경제에 대해 프레드릭 미시킨 콜롬비아대학 경제학교수 역시 '금융부패고리를 끊는 것'이 구조조정의 열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의 경영성적을 계수화한 회계자료에 대한 분식이야말로 투자자와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게 하여 결국 기업이 고사하게 만든다. 회계의 투명성은 정치, 사회의 투명성과 비례한다. 또 그것을 빌미로 대부분 기업 스스로도 부패를 확대생산한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S바이오, D해양 등도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크게 있었다.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분식회계를 법원파산부에 신고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오너의 지시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분식회계한 D그룹등, 한국기업의 수많은 사례들은 이제 뉴스도 못된다. 종합병원에 납품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줄 뒷돈때문

에 제약회사가 매출액의 10%정도까지 허위로 장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놀란 입이 다물 어지지 않는다. 새롭게 벤처스캔들도 구약을 태연히 반복했다.

원래 한국인들은 백의민족으로 깨끗함과 그것을 지키는 선비를 존중해 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더러워진 점이 있어왔다.

이제 무엇보다 깨끗함을 회복하고 유지해야겠다.

미래는 부(富)의 창출 메커니즘의 핵심에는 지식과 사람이 있다. 그래서 깨끗함이 법과 시스템보다 선결과제다. 깨끗지 못한 상태의 지식과 인적자원은 사태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고 효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깨끗함으로 자유를 찾자.

깨끗함으로 유능함을 담자.

깨끗함으로 번영하자.



터널 등기구 교체건에 대한 처리

Q

질의드립니다.

당사의 터널등을 효율성이 높은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 1)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하였으므로 터널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조도가 개선되고 에너지효율이 좋아졌지만 기존 등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2) (자본적지출 가정시) 터널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터널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기구는 공기구비품에 해당되므로 공기구비품 본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A

해당 자산의 경제적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대해서 자본적지출로 반영하고, 그외의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전등의 교체로 구축물(터널)의 내용연수가 증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익적지출이 타당합니다.

다만, LED등의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자산인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수익적지출이 아닌 비품 등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여도 됩니다.

산업시설 구축지연에 따른 세액감면 환수부분

Q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취득 후 3년이내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추징된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추징된 취득세는 취득된 토지에 후속원가로 보아 원본에 산입해야할지 아니면 추징세액으로 보아 세금과 공과의 별과금으로 처리해야할지 의문이네요.

A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추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되는 경우의 해당 세액은 취득한 자산(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가산금 등은 별과금으로 처리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원래 납부해야 하는 국세나 지방세액을 감면요건 미충족에 따라 추징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별과금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하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회계처리 기준 문의드립니다

Q 당사 직무보상발명제도 도입에 따라 발명자(종업원)에게 지급할 보상금 회계처리 기준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 진행하면 세법상 이슈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재직자

- 1) 소득항목 : 근로소득
- 2) 과세여부 : 비과세 (최대 연 500만원까지, 초과시 과세처리)
- 3) 급여항목 : 상여
- 4) 이행상황신고서 항목 : A01 (과세금액에는 미포함)
- 5) 4대보험 항목 : 고용보험 공제

2. 퇴사자

- 1) 소득항목 : 기타소득
- 2) 과세여부 : 과세 (최대 연 500만원까지, 초과시 과세처리)
- 3) 급여항목 : 미대상
- 4) 이행상황신고서 항목 : A42 (과세금액에는 미포함)
- 5) 4대보험 항목 : 미대상

A 1.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또한 연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하면 되며, 기타소득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세 지급시기

Q 혹시 배당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해야하는 기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문을 확인한 결과 배당소득에 지급시기는 삭제된 조항으로 확인되고 원천징수신고시기만 확인이 되어 배당소득의 지급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조항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배당소득의 지급기한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배당의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제 규정은 소득세법 제131조입니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사무용품 등은 소모품으로 자산반영후 결산시 소모품비로 대체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회사는 영리추구를 위해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기업이 사용하는 자원에는 건물이나 기계장치·차량 등처럼 사용기간이 길고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책상 등과 같은 가구나 컴퓨터, 팩스·프린터, 문방구, 청소용품, 필기구 등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고 비싸지 않은 물품들도 많다.

이처럼 사용기간도 길지 않고 사용하는 대로 닳아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물품들은 집기·비품으로 자산반영을 하여 다른 감가상각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사용하는 대로 닳아 없어지게 되는 물품들은 소모품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먼저 자산(소모품)으로 반영하였다가 결산시점에 실제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먼저 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시점에 미사용 분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용품 등은 비품으로 반영

업무에 사용되는 물품 중 컴퓨터나 프린터, 책상 등 사무용 가구 등은 그 사용기간(내용연수)이 1년 이상이므로 자산으로 반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때 사용하는 계정이 비품이다.

따라서 컴퓨터나, 업무용 가전제품, 프린터, 가구 등은 구입시 비품으로 반영한 뒤 결산시점에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① 구입시점

차) 비품(자산으로 반영)	1,000	대) 보통예금	1,000
----------------	-------	---------	-------

② 결산시점(감가상각하여 비용반영)

차) 감가상각비	200	대) 감가상각충당금	200
----------	-----	------------	-----

사용기간이 1년 미만 사무용품 등은 소모품으로 반영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필기구·복사용지·문방구 등의 각종 사무용품, 종이컵·건전지 등의 각종 일회용품 등은 사용기간이 짧으며, 장치 등의 유형자산과 구분되고 책상·의자·컴퓨터 등의 집기비품과도 구분되는 소모성, 일회성 물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은 최초 구입 시에 유형 자산이나 집기비품이 아닌 ‘소모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여 회계반영한 뒤, 결산시점에는 실제 사용한 만큼만 ‘소모품비’라는 비용계정에 대체시키면서 자산에 반영하였던 소모품 계정에서 감액시키면 된다.

즉,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의 특성상 금액이 크지 않은 일회성, 소모성 용품이라도 전체금액을 무조건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분만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례1) 사무용 소모품 1,000원 현금으로 구입 후, 12월31일 결산시점에 소모품 조사한 결과 미사용분 300원이 남아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① 소모품의 구입시점(먼저 자산으로 반영)

차) 소모품(자산으로 반영)	1,000	대) 현금	1,000
-----------------	-------	-------	-------

② 결산시점(미사용분을 제외한 실제 사용분 700원을 비용으로 반영)

차) 소모품비	700	대) 소모품	700
---------	-----	--------	-----

사무용품이나 일회용품 등의 소모품을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모품 등을 최초 구입하는 시점에 우선 비용으로 처리한 뒤, 추후 결산시점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산에 반영하면서 비용처리된 부분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먼저 자산으로 반영한 후에 실제 사용분만 비용처리하는 방법과 반대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결과는 같게 되므로 실무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사례2) 사무용 소모품 1,000원 현금으로 구입 후, 12월31일 결산시점에 소모품 조사한 결과 미사용분 500원이 남아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① 소모품의 구입시점(최초 구입시점에 우선 비용으로 반영)

차) 소모품비	1,000	대) 현금	1,000
---------	-------	-------	-------

② 결산시점(미사용분을 자산으로 반영)

차) 소모품	500	대) 소모품비	500
--------	-----	---------	-----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증과세율

구분		현행			개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지역)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5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타지역) 기본세율	기본세율	



토지 양도소득세율 개편안

구분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주택 · 입주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 70%	50% → 70%	기본+10%p → 기본+20%p	70%
	2년 미만	40% → 60%	40% → 60%	기본+10%p → 기본+20%p	60%
	2년 이상	기본(6~45%)	기본+10%p → 기본+20%p		기본



OECD평균과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규모 및 구성비중('18 기준)

OECD구분명(코드번호)		대한민국		OECD평균	
		GDP대비 %	재산세 구성 비중	GDP대비 %	재산세 구성 비중
재산세(4000)		3.10	-	1.86	-
재산세 세부 항목	부동산 보유세(4100)	0.82	26	1.07	58
	금융 및 자본거래세(4400)	1.89	61	0.45	24
	상속·증여세(4300)	0.39	13	0.1	7
	순자산세(4200)	0.00	0	0.16	9
	비반복적 재산세(4500)	0.00	0	0.04	2
	기타 재산세(4600)	0.00	0	0.01	1
양도소득세(1120)		0.95	-	0.15	-
합계		4.05	-	2.01	-

(보험연구원)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상품

상품	특징과 장점
주택청약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금액 조정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간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포트폴리오 직접 만들어 투자 가능
예·적금	주거래 은행 설정시 거래 가능액증가
	신용도 높여 향후 대출금리 인상 가능
펀드	장기투자 측면에서 유리
	젊을수록 주식투자 비중 높이는 TDF펀드
	세계 유망 증시에 나눠 투자하는 ETF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방법

1. 의욕이 없더라도 일단 시작하라.
2. 큰 소리로 기합을 넣으면 뇌를 각성시킨다.
3. 하기 싫은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하라.
4. 하기 싫은 일은 '오늘 하루만' 하자는 생각으로 위안하라.
5. 마감시간을 미리 설정해놓고 일을 하라.
6.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는 쉬운 것부터 시작 하라.
7. 하나마나한 '보상'은 안하는 편이 낫다.
8. 틈틈이하는 '작은보상'은 효과적이다.
9. 책상 정리는 집중력을 위한 훌륭한 위명업이다.
10.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 뇌를 자극시켜라.
11. '라이벌'에게 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의욕이 샘솟는다.
12. 싫어하는 일은 억지로라도 관심을 가져라.
13. 싫어하는 일이나 공부는 '게임'처럼 하라.
14. 어려운 주제는 기초부터 시작하라.
15. 하던 일을 일부러 조금 남겨두고 중단하라.
16. 정말로 의욕이 없을 때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최 신 판 례 예 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인-4314, 2020.05.26

■ 질 의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 (질의 1)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질의1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A법인이 차입하여 B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두 법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남은 구성원이 지분을 그대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468, 2020.06.12

■ 질 의

- 수십년간 6인이 ◎◎동 소재 ☆☆빌딩을 공동소유하면서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자 3인이 탈퇴하고 그 공유지분을 존속하는 공동사업자 3인이 취득함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그 공동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3650, 2020.08.21

■ 질 의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휴게소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음

질의요지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예고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된 ◇◇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을 위하여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예고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사전법령법인-1010, 2020.11.27

■ 질 의

- 내국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2020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2018~2019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 2018~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2020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D-7’ 근로·자녀장려금… 31일 넘기면 장려금 10% 삭감

오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을 넘기면, 차후 신청해도 장려금의 10%가 삭감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5월말까지다.

정기 신청 이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은 10% 줄어든다.

12월 이후에는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모든 가구의원의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비대면 신청만 이용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 전용 ARS 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안 받았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장려금에 대해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는 상위 2%, 다주택자는 상위 4%에 종부세"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최상위' 비율로 수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검토하는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대상을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의 상위 4%'로 더 넓게 잡아 차등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특위가 종부세 개선안으로 당 지도부에 보고한 4가지 가운데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대상을 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특위나 당 지도부와 논의한 법안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제실 검토를 거쳐 법안 최종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하는 국세통계’ 온라인 신청…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개통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부터 국세통계센터 누리집(NTS Datalab)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용 등을 신청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누리집에서 최종 분석 결과물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분야는 사업자세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자녀장려금이며 각 항목의 기초자료에서 특정 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한 후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제공한다.

2018년 6월 개소한 후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조세정책 연구·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과세정보와 다른 기관 보유자료간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국세통계센터 이용확대를 통해 공익목적의 국세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반도체 전략」 중 세제지원 내용

- 기획재정부, 2021. 5

1.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확산, 기술 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따라 핵심기술의 중요성 부상
 - 국가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하여 지원 강화 필요
- 특히, 반도체 분야는 핵심 주력산업으로서 디지털 경제 전환,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세계 측면에서 지원

2. 제도 현황

- 현재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세제지원
 -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를 우대 적용
 - * (R&D, 반도체 부문 20개) 12nm 이하 D램, 220단 이상 낸드 설계·제조기술 등
(시설, 반도체 부문 15개) 7nm 이하 파운드리, 14nm 이하 D램 및 170단 낸드 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 현행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

①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②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3. 세제지원 강화 방안

-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추진을 위해 3번째 단계로서 (가칭)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

○ (지원내용) (가칭)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 대폭 확대

－ (R&D 비용)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최대 50%(대기업 최대 40%)로 지원

－ (시설투자) 공제율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하여 지원 확대*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

■ 상용화 전 양산시설을 (가칭)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포함하여 지원 실효성 제고

①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핵심전략기술	30~40		40~50

②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핵심전략기술	6	8	16	4

⇒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중소기업 R&D 비용 최대 50%, 시설투자 최대 20%)

○ (지원기간) 투자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 간 한시 적용('21년 하반기 ~ '24년 투자분)

－ '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 적용하여 조기투자 확충 지원

4. 추진계획

□ 동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

□ (가칭)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

*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중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선별

참고

Q&A

◇ 주요국의 세제지원 사례

- (미국)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 적용,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세제 지원 없음
 ※ 반도체 투자에 대한 40% 세액공제 법안이 의원발의(「CHIPS for America Act」, ' 20.6월 발의)되었으나, 현재 의회에서 미처리
 → 의회통과 여부 불투명
- (대만) R&D 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 첨단산업 시설투자에 대해 5% 세액공제 적용
 ⇒ 우리나라의 세제지원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음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21일 (금)	5월 24일 (월)	5월 25일 (화)	5월 26일 (수)	5월 27일 (목)
미 달 러 (USD)	1132.20	1126.90	1127.60	1122.80	1118.60
일 본 엔 (JPY)	1040.48	1034.57	1036.25	1032.13	1024.88
영 국 파 운 드 (GBP)	1606.20	1594.11	1596.17	1588.54	1579.24
캐 나 다 달 러 (CAD)	938.30	933.68	935.88	931.01	922.25
홍 콩 달 러 (HKD)	145.85	145.14	145.23	144.64	144.10
위 안 화 (CNH)	175.85	175.25	175.31	175.24	174.89
유 로 화 (EUR)	1384.28	1372.90	1377.42	1375.60	1364.08
호 주 달 러 (AUD)	880.12	871.09	874.23	870.56	865.63
싱 가 폴 달 러 (SGD)	850.80	846.31	849.06	847.20	844.1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3.25	272.13	271.97	271.04	270.03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2021. 5

- (착수 배경)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4.1.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선정유형은
 - ①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06명,
 - ②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 ③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
 - ④ 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 ⑤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하여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입니다.
- (조사 방법)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습니다.

1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30.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4.1.에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기획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등 165명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 이번에는 분석 대상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를 분석 중이며
 - 이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과 사주,
 -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쪼개어 판매하여 사실상 기획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업자 등
 -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부동산 거래관련 주요 탈루사례

- 그간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p>사례 ①</p>	<p>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자금을 유출한 법인</p> <p>◆ 법인이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차입하고 관련 이자 등 업무 무관 비용 계상 -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등 〇〇억 원 추정
--------------------	--



사례 ②

변칙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

- ◆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며 소득금액이 〇억 원인 대표자가 〇〇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여 조사한 결과,
- 차입금을 본인이 운영 중인 다른 법인의 자금을 빌려 상환(돌려막기)하며 변칙 회계처리로 자금을 유출하면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및 증여세 등 〇억 원 추징

사례 ③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 영위

- ◆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 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〇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으며 가공의 수수료 〇〇억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 받아 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에 거액을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등 〇억 원 추징, 계열사 추가 조사 착수(범칙조사)

3

조사 방법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 검증

-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대출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21. 5. 17.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토지에 대해서도 담보대출비율(LTV) 제한 적용(최대 70%, 토지 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40%, 금융위원회 4.29. 발표 「가계부채 관리방안」 참조),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
-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등 신고내역 정밀 검증

-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하여 사적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위법사항 조치

-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향후 계획

-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들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 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하여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고
 -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어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 또한,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동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며

-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붙임 1 - 세무조사 주요 추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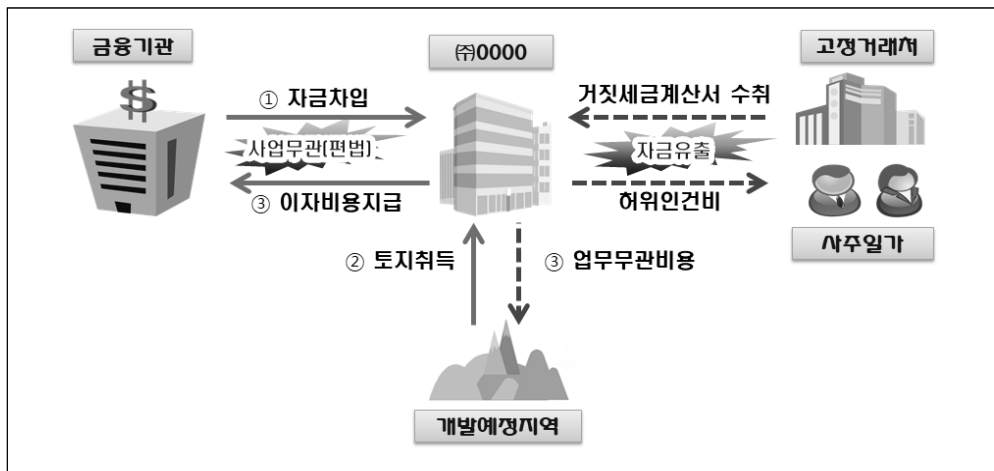
사례 1

금융기관에서 편법으로 자금을 빌려 사업과 관련 없는 지가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공경비·허위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자금을 유출한 법인

□ 인적사항

- 상호 : (주)○○○○

□ 주요 조사 내용



- (주)○○○○은 수도권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억 원을 차입하고,
 - 해당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및 법률 비용 등 업무무관비용 ○○억 원을 사업경비로 변칙처리하면서 소득금액 탈루
- 또한, 사주 가족에게 허위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 조치 사항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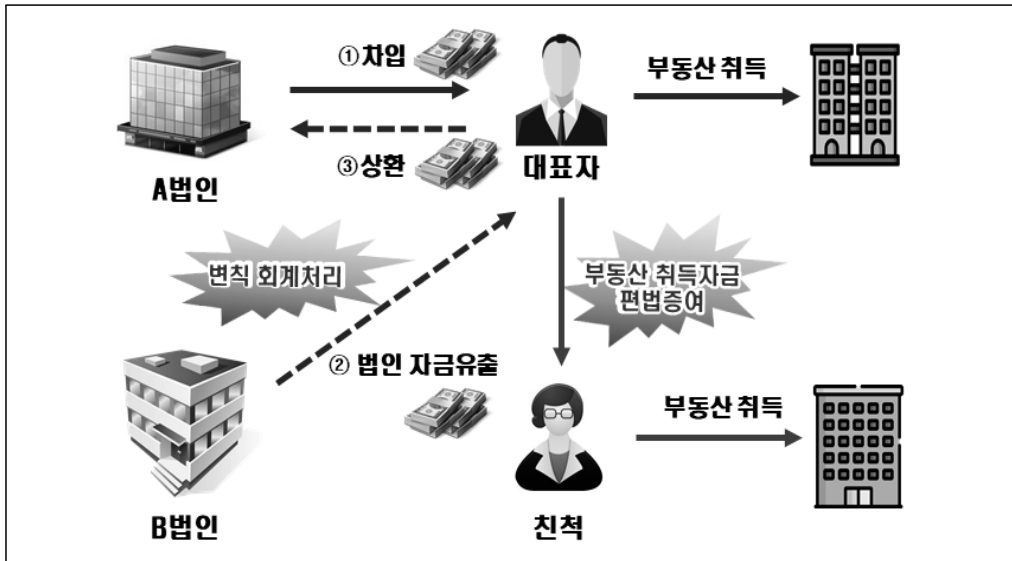
변칙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법인대표

○ 수증자 : 친척

□ 주요 조사 내용



-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며 소득금액이 〇억 원인 대표자가 〇〇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 본인이 운영 중인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B법인 자금을 변칙 회계처리로 유출하여 A법인의 차입금을 상환(돌려막기)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 유출한 자금 중 일부는 자금여력이 없는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법인세 및 증여세 〇억 원 추정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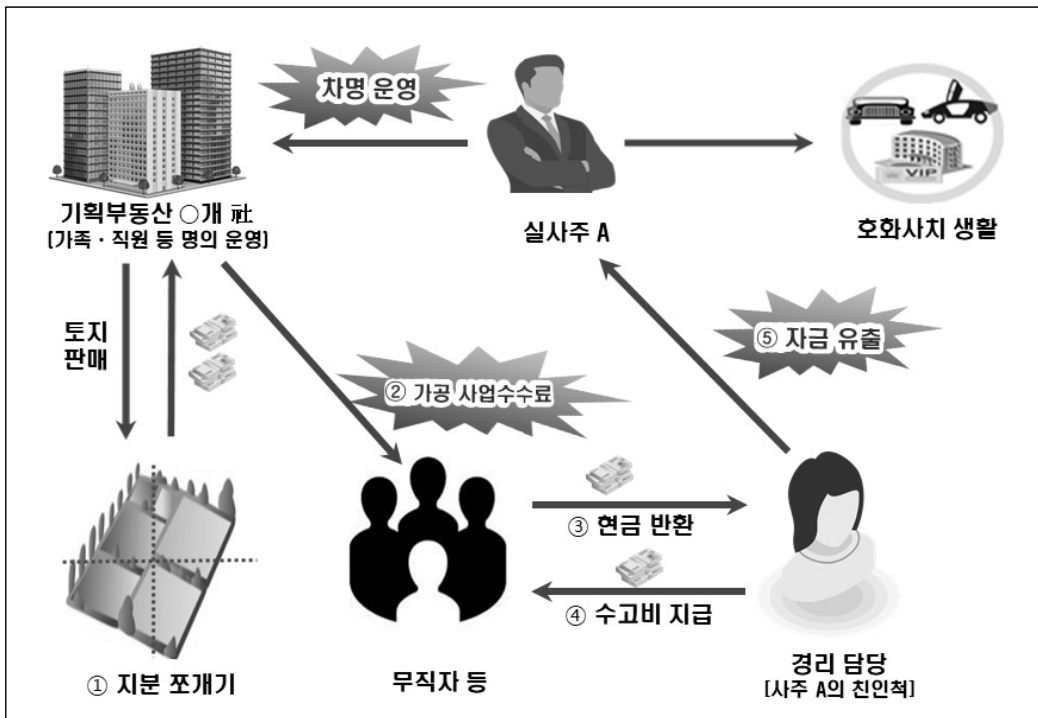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 영위

□ 인적사항

○ 상호 : (주)○○○

○ 업종 : 부동산 매매

□ 주요 조사 내용



-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으며
 - 가공의 수수료 ○○억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 등 호화 사치 생활 영위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계열사 추가조사 착수(법칙조사)

붙임 2 -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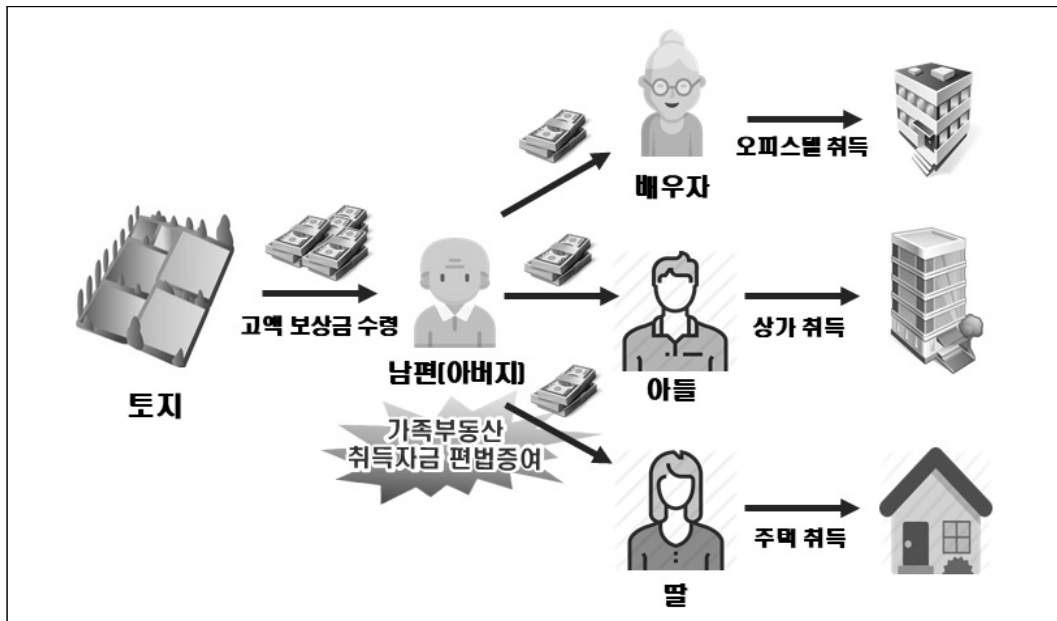
사례 1 남편(아버지)의 토지 보상금을 증여 받아 배우자 및 자녀가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인적사항

○ 증여자 : 남편(아버지)

○ 수증자 : 배우자, 아들, 딸

□ 주요 혐의 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상가 등 〇〇억 원의 부동산 취득
 - 남편(아버지)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〇〇억 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한 바,
 -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 선정

□ 향후 계획

- 남편(아버지), 배우자 및 자녀 자금출처 조사 착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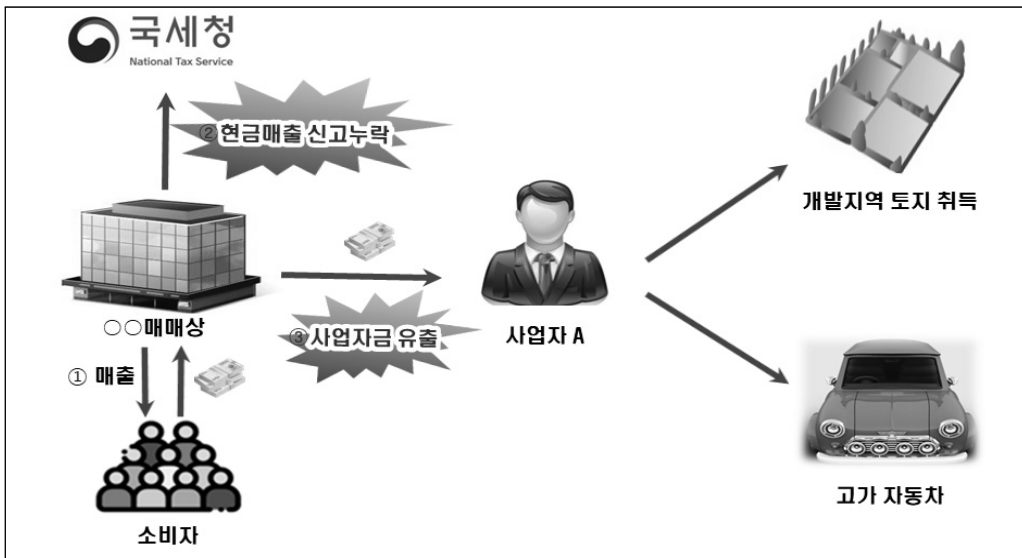
사례 2

○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누락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 인적사항

○ 사업자 : A

□ 주요 혐의 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가 ○○억 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
-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 상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사업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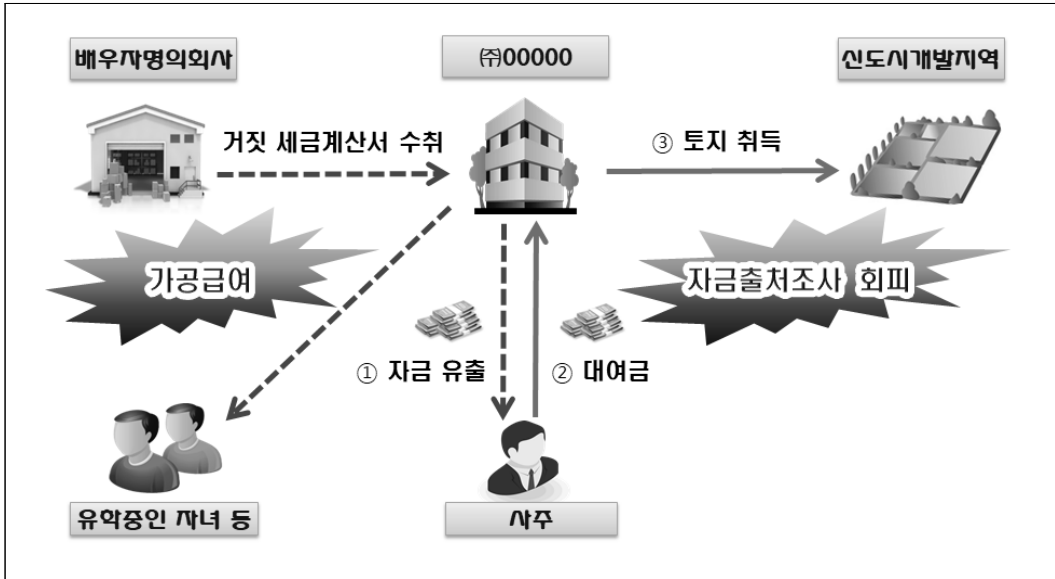
□ 향후 계획

- 사업자 A 자금출처 조사 및 필요시 관련 사업체 세무조사 착수 예정

사례 3

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가공인건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여
사주에게 자금을 유출하고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 취득

□ 주요 혐의 내용



- (주)○○○○○ 사주 ○○○은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 또한, 본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 빼돌린 자금을 법인에 편법으로 대여하여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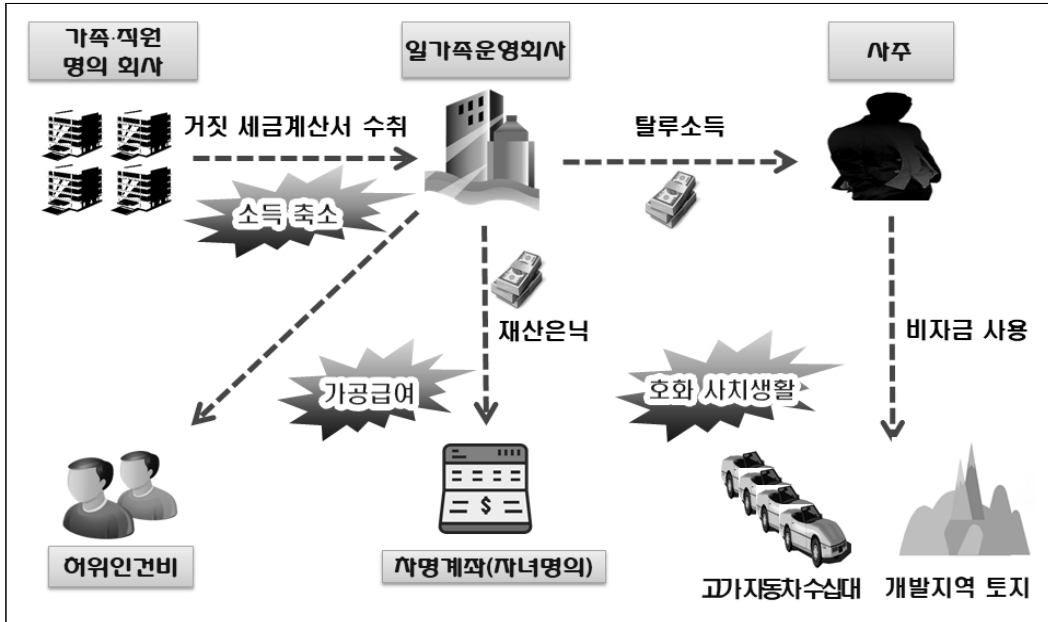
- 가공비용 계상, 대여금 자금원천,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 검증



사례 4

가족·직원 명의 회사를 통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고가 자동차 수십대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사주일가

□ 주요 혐의 내용



- ○ ○ 은 매출이 급증하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가족 명의로 구매·생산·판매 업체를 각각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소득금액 탈루
 - 세금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가족 및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재산은닉
 - 특정 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가족 업체 간에 수십억 원의 거짓 거래를 만들고,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 축소
- 사주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 ○ ○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집중 매수
 - 또한, 고가 자동차 수십대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다수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 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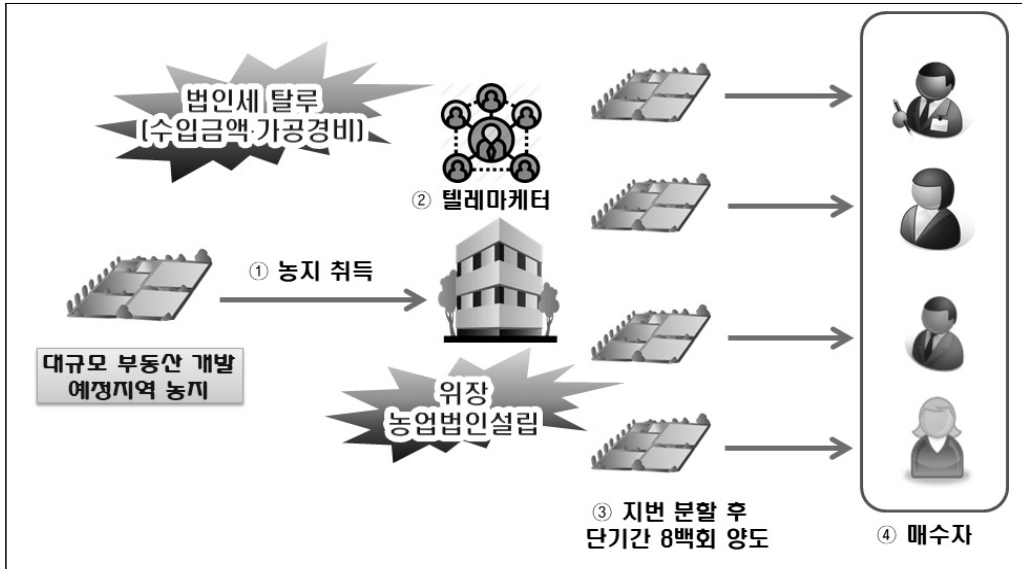
□ 향후 계획

-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 혐의 검증

사례 5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개발예정지 농지를 취득하여 지분을 쪼개고 수백명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단기간 양도 후 세금을 탈루한 농업법인

□ 주요 혐의 내용



- 건설회사를 다니던 A씨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함
- A씨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은 실제 농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개발예정지 일대 〇〇만㎡, 〇〇〇억 원대 농지를 취득하고
 - － 설립 등기상 농작물 생산, 유통업과 무관하게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백여명까지 고용하여 지분 쪼개기를 통해 단기간 8백회 양도하고 수입금액 누락
 - － 또한,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판매수입을 누락하고, 가 공인건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함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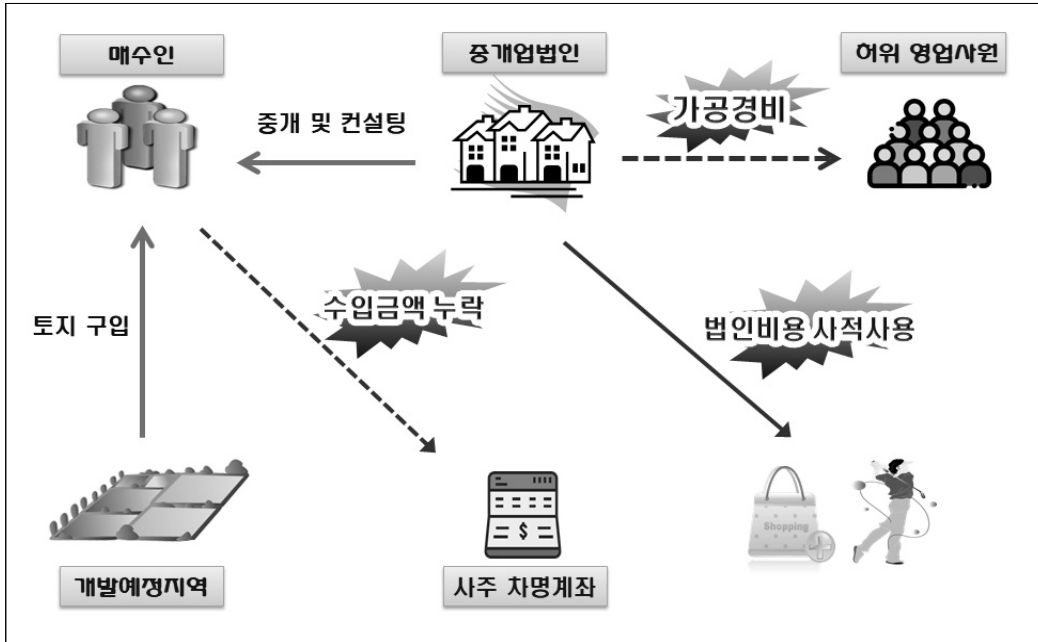
- 양도소득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혐의 검증



사례 6

신도시·지가 급등지역 토지 수십 건을 중개한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법인

□ 주요 혐의 내용



- 부동산 중개컨설팅 법인인 (주)○○○은 지가급등으로 거래가 활발한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를 다수 중개하면서
 - 수십 건의 고액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 금액 누락
- 또한, 수입금액이 늘어나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가공의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 사주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비용으로 골프장 이용, 백화점 쇼핑, 고가의 전자제품 구입 등 사적 사용

□ 향후 계획

- 현금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 검증

신종 · 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 국세청, 2021. 5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산업별 양극화 현상(호황 · 불황)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 · 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 · 업종별 경제동향 분석 · 진단을 통해 호황분야를 도출하고,
 -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조사대상은 그 도출과정을 통해 코로나19에도 내 · 외부 모든 자료의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인 분야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유형1)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 · 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

* '20년 수입금액 28% ↑ (모빌리티 37.3%, 레저 · 취미 용품 29.7%, 골프 24.1%)

▶ (유형2)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 · 건강 관련 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

* '20년 수입금액 19% ↑ (집콕산업(home-cook) 16.8%, 건강식품 26.0%, 호황의료 14.2%)

- (향후계획) 이번 조사는 최근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신종 · 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하였고,
 -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적시성 있는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I

추진배경

- 우리 경제가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가운데,

【'21년 1/4분기 실질GDP 속보(한국은행, '21.4.27.)】

GDP 증감(전년동기대비)	상승	하락
'21년 1/4분기 1.8% ↑	광공업 3.8 ↑	도소매, 음식·숙박 0.5 ↓
	제조 3.9 ↑	운수업 6.0 ↓
	금융보험 9.8 ↑	문화 기타서비스 7.4 ↓

* '20년 1/4분기('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는 전년동기대비 1.4% ↑

- 아직도 일부 서비스 분야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 일부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만이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산업별 양극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극한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 위기상황에서 일부 코로나 승자들은 호황을 누리면서도 성실납세를 통한 이익을 공유하는 노력 없이 다양한 탈세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경제회복의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호황분야 위주의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Accurate Targeting)을 위해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분석·진단하였습니다.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20년) 진단·분석】

- ① NTIS 빅데이터(잠정) : 부가가치세 매출액(1.6%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3.4% ↑)
- ②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 161조(전년대비 19% ↑)
- ③ 국내포털사이트 국민 이동량 DB : 전반적 이동량 ↓, 야외시설 등 이동 ↑

- 이러한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떠오른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발굴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II

호황분야 도출 과정

-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와 다양한 외부자료를 연계하여 비교분석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호황분야*를 도출하였습니다.

* '19년 대비 '20년(코로나19 대유행) 수입금액이 증가한 분야

- ①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 ⇨ 전자제품 · 골프장 · 안과 등 관련 산업은 호황, 실내운동 · 주점 · 숙박업 등은 불황

【'20년 부가가치세 매출액,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금액(국세청)】

구분	호황분야	불황분야
제조·도소매	주방가전, 컴퓨터, 이륜차	연료, 상품종합 도매
스포츠·공연	골프장, 골프연습장	실내운동, 노래연습장, PC방
보건 · 복지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음식 · 숙박	커피, 패스트푸드, 제과	유흥주점, 숙박, 일반주점

- ② 온라인 쇼핑동향 ⇨ 전자제품 · 스포츠 · 레저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호황, 여행 · 교통 · 문화 관련 산업은 불황

【'20년 온라인 쇼핑동향(통계청)】

구분	호황분야	불황분야
가 전	컴퓨터, 주방가전, 통신기기	
패 션	스포츠, 레저, 아동·유아용품	패션용품, 액세서리
식품·생활	식음료, 이륜차, 가구, 반려동물	
서 비 스	음식, e쿠폰	여행·교통, 문화, 공연

* 온라인 쇼핑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증가 반영

- ③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 ⇨ 반려동물 · 골프장 · 피부과 등 관련 산업은 이동량 증가, 면세점 · 축제 · 산후조리 · 영화관 등은 이동량 감소

【'20년 국민 이동량 DB(국내포털사이트)】

구분	이동량 증가	이동량 감소
일상·쇼핑	반려동물, 가구, 주방가전	면세점, 음식점, 찜질방
스포츠·레저	골프장, 골프연습장, 낚시터	축제, 체육관, 호텔
의료·건강	피부, 안과, 정신, 성형	산후조리, 이비인후과
교육·문화	독서실, 자동차극장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 이동량 : 국민들이 이동수단의 목적지로 선택한 국내포털사이트 자료

III 조사대상 선정

- 이번 조사대상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별 · 업종별 변화양상(과거자료보다 '20년 이후의 최근 상황 집중)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현장경제 상황에 맞는 세무조사 필요분야를 최적화하였고,
- 그 결과, 호황분야 도출과정에서 대 · 내외 경제동향 자료의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이고,



코로나19에도 수입금액이 증가한 업종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유형1 : 레저·취미 관련)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5명입니다.
 - 조사대상자 중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①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37.3% 급증하였고,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②, 골프관련 분야③도 각각 29.7%, 24.1%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2 : 비대면·건강 관련)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2명입니다.
 - 조사대상자 중 밀키트(meal-kit)·포장용기 등 집콕산업(home-cook)①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하였고,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②, 안과·피부과 등 호황 의료 분야③의 수입금액도 각각 26.0%, 14.2% 증가하였습니다.

IV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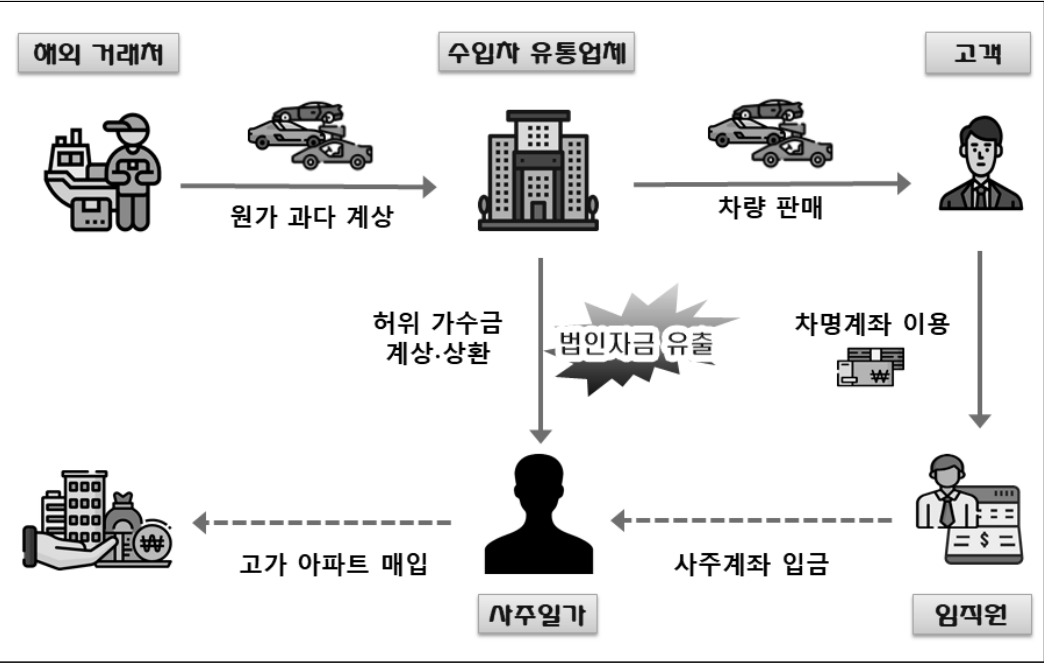
-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들로
 - 이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V 향후 계획

- 이번 조사는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사업자는 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였고,
 - 반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적시성 있게 정밀 분석하여
 - 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 이번 착수 사례(6개)

사례 1 **코로나 보복소비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고가 수입차 유통업체**
*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 부동산 취득



- 주요 탈루 혐의
- ○ ○ 법인은 고가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 탈루
 - 또한,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
 - 사주일가는 법인의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하여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등 과소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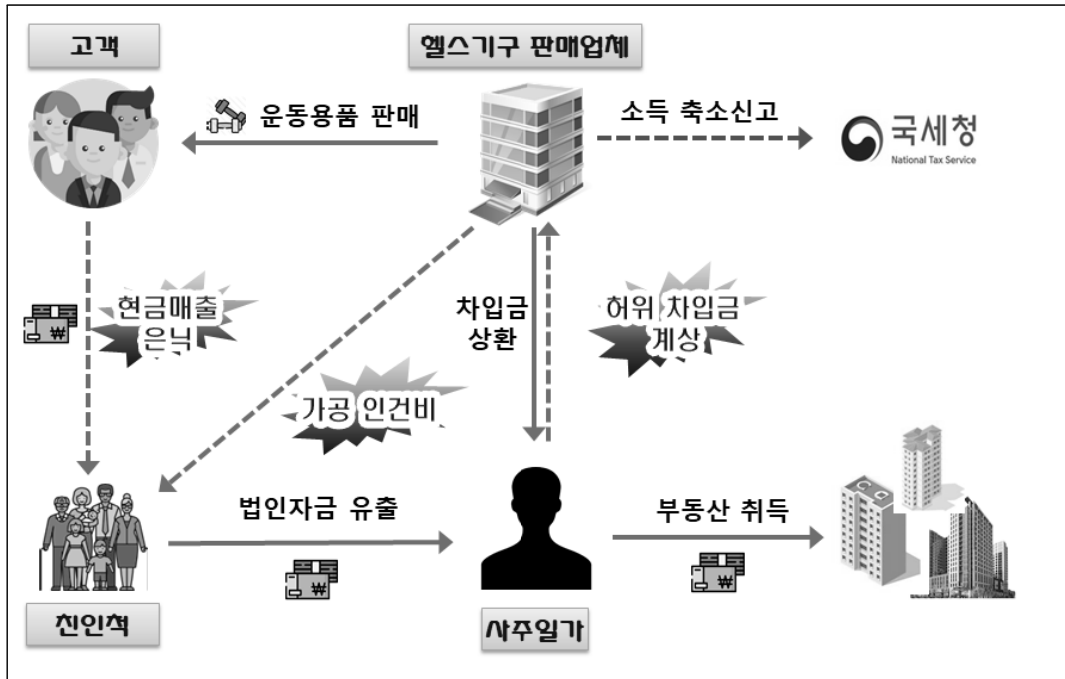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 법인 수입금액 누락 및 사주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엄정 조사



사례 2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급성장 중인 헬스기구 판매업체

* 현금매출 누락 및 허위 차입금 계상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탈루소득으로 사주일가 부동산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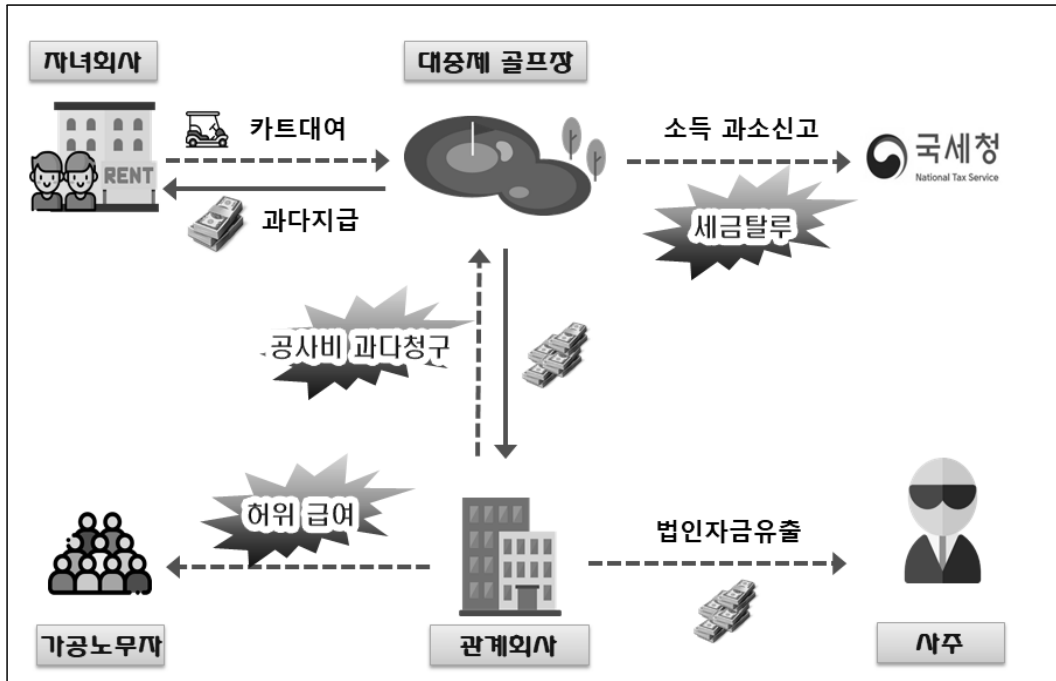
□ 주요 탈루 혐의

- (주)○○○은 최근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게 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등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법인소득을 과소신고
- 사주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 건을 취득한 혐의

□ 조사 방향

⇒ 허위 차입금 계상 및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등 엄정 조사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초호황을 누린 대중제 골프장
사례 3 * 골프장 조경관리 공사비 및 골프카트 대여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등 소득 탈루



□ 주요 탈루 혐의

- ○ ○ CC는 유명 대중제 골프장으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그린피 등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는 등 초호황을 누리면서
 -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매월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 후 법인자금 유출
 - 또한, 100여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등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
- 사주일가는 20대 자녀들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저가 증여하여 증여세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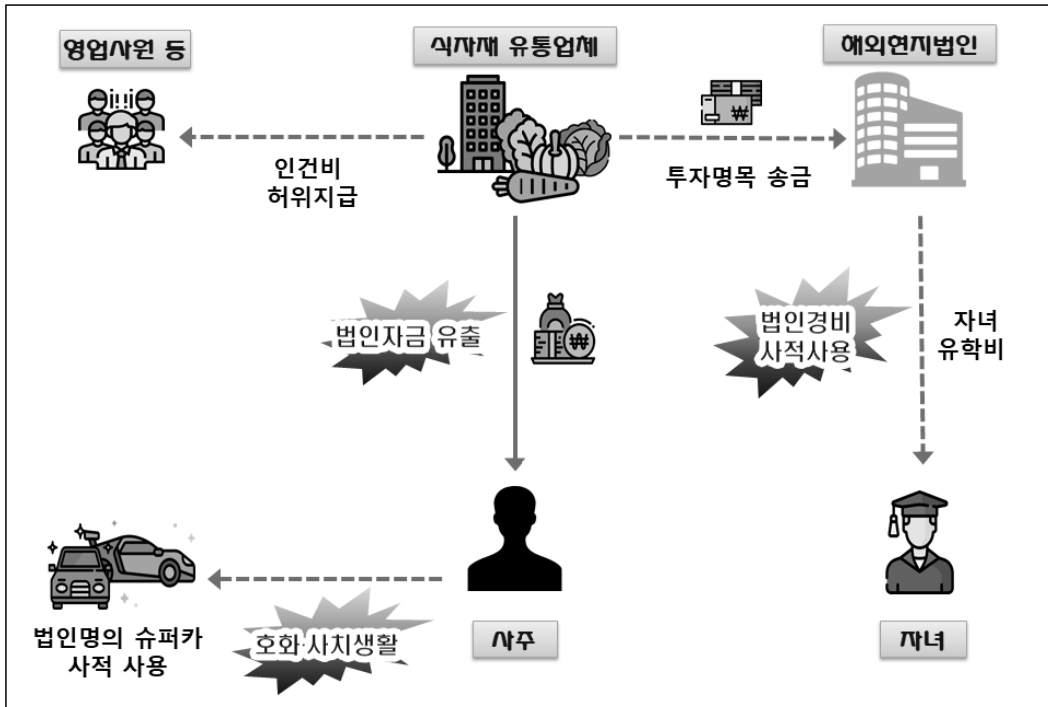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 엄정 조사



집콕 유행에 따라 특수를 누리고 있는 식자재 업체

사례 4 * 서류를 조작하여 직원 성과급 등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고, 사주일가가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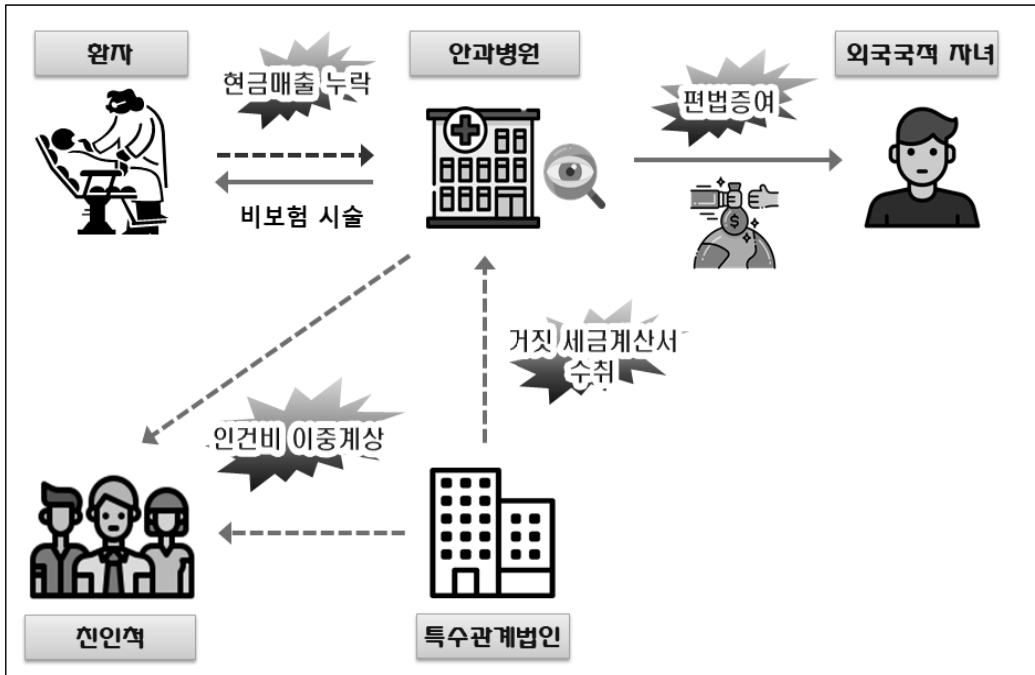
□ 주요 탈루 혐의

- ○ ○ 법인은 영업사원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다수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의 개인부채 상황에 사용
-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과시적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 사업장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하여 유학중인 사주 자녀의 학비·생활비 등에 사용

□ 조사 방향

⇒ 허위 인건비 및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등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 5 재택시간 증가로 환자가 늘어 호황인 안과
*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 주요 탈루 혐의

- ○ ○ 안과병원은 최근 재택근무로 안과 수술 환자가 증가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내방환자에게 고가의 비보험시술을 권유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력교정전문 병원으로
 -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함
 - 또한,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허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함
-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 송금하여 편법증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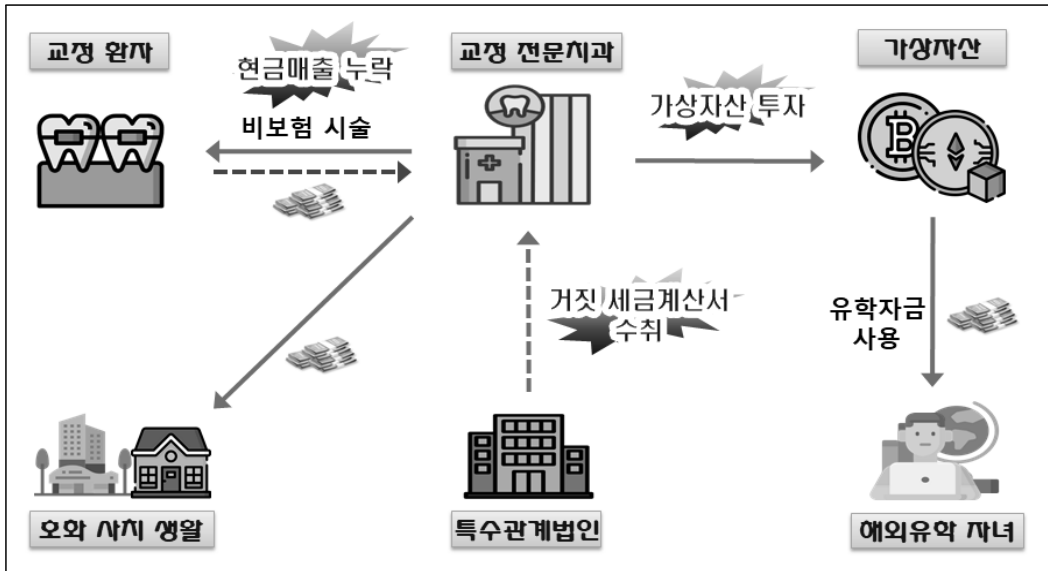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병원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조사



탈루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치과원장

사례 6 *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사용



□ 주요 탈루 혐의

- ○ ○ 치과는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치과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하여 유학자금으로 사용
-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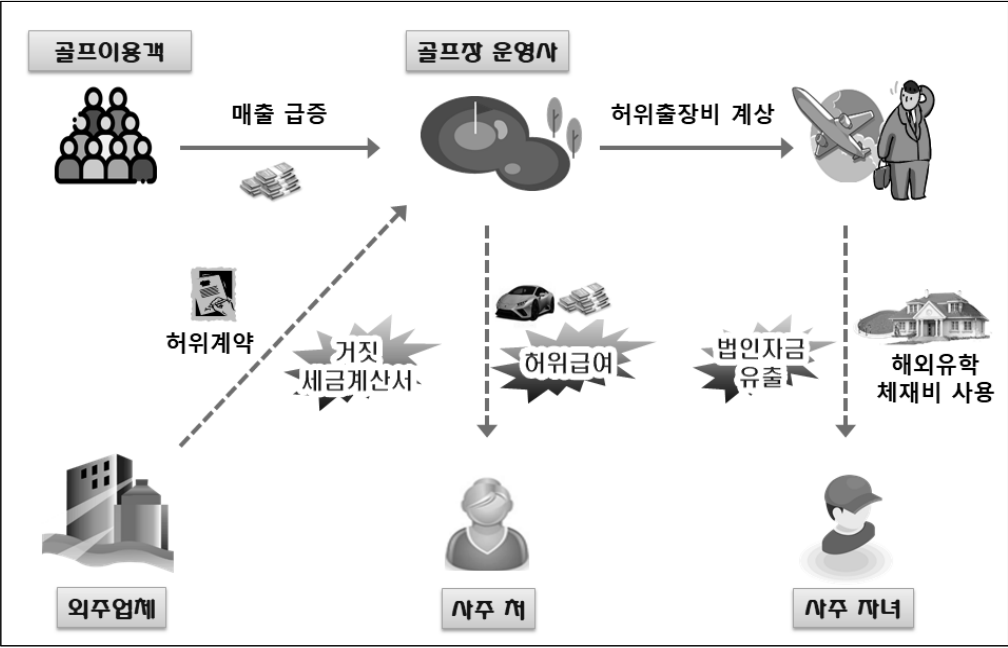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등 조사

붙임 2 – 지난 조사 사례(3개)

사주일가의 거짓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골프장

사례 1 * 외주업체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일가에 급여 등을 부당 지급하여 법인자금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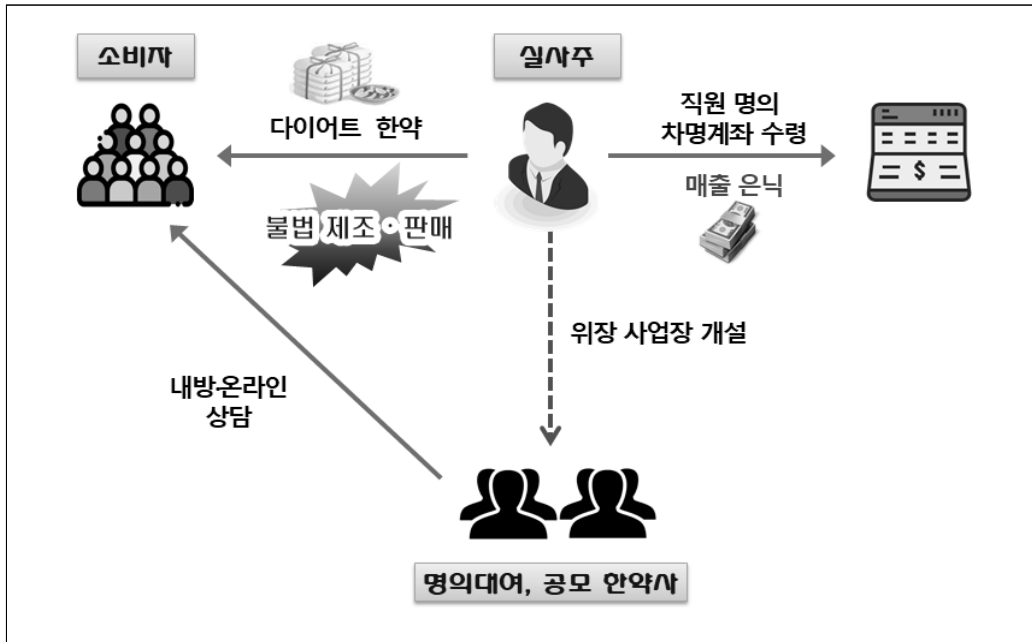
- 조사 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 ○○○은 골프수요 확대로 매출이 급증하자 사주의 친척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와 허위계약서를 꾸며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 용역업체로부터 사주 소유의 주택수리 및 빌딩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골프장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경비를 부당계상
 - 사주의 배우자는 실제 근무한 사실 없이 법인 소유 고급 외제차 및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고
 - － 해외골프장 연구 명목으로 수십여회 해외출장비를 계상한 다음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체재비와 유학비 지원에 사적사용

- 조사 결과
- ⇒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불법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미등록 건강식품 제조업자

사례 2 * 명의대여 한약국을 개설하고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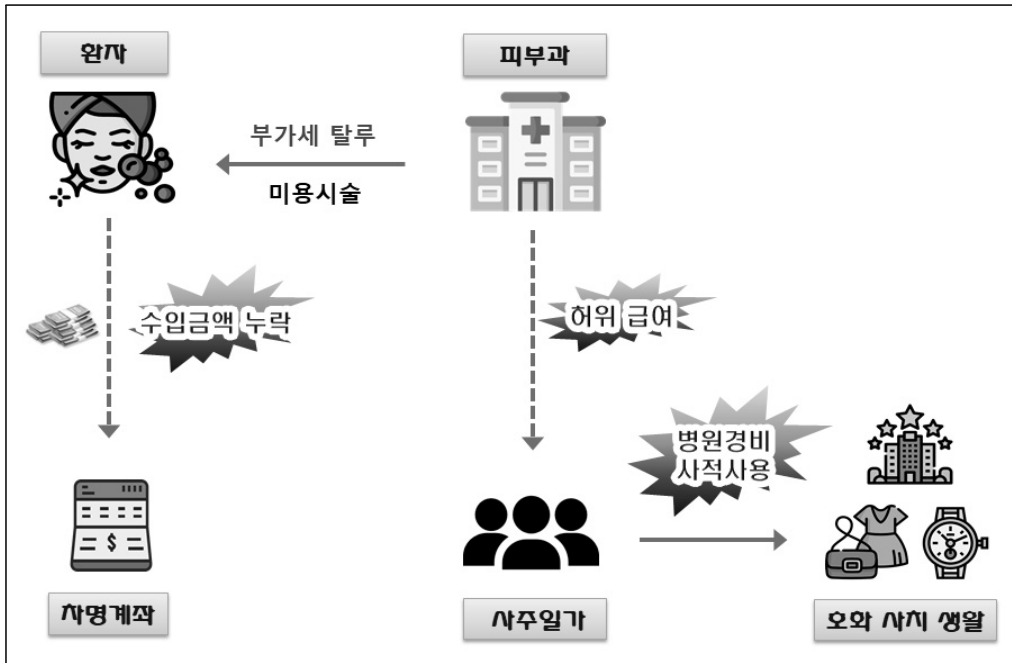
□ 조사 내용

- 일상생활 활동량 감소에 따른 체중 증가로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 ○○○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자로 한약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한약사와 공모하여, 사전에 제조한 불법 한약을 상담을 통한 맞춤형 다이어트 한약으로 위장하여 판매
 - 저가 재료를 사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다수의 직원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하여 수입금액 00억 원을 신고 누락
- 한약사들은 명의대여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공모한 한약사들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소득세 등을 탈루

□ 조사 결과

-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사례 3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피부과
*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미용목적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 조사 내용

- 피부과를 운영하는 ○○○은 재택근무의 증가로 회복기간이 필요한 미용시술 수요가 급증하자
 - 상담실장을 고용하여 고객에게 고가의 미용시술을 안내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함
- 또한,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인건비 허위 계상 및 백화점, 명품, 고급호텔 사용료 등 사적 비용을 병원 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

□ 조사 결과

- ⇒ 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 원 부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근로복지공단, 2021. 5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
 -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 (사회보험료 사업주 지원) 강원, 충남, 전북, 제주, 경남
 -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대전, 서울, 경기, 부산, 울산
 - *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강원도	'18.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군청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강원도 콜센터 (033-120)
충청남도	'19. 1. 1.		- 시·군 일자리(경제)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청 콜센터 (041-120)
전라북도	'20. 3. 1.		- 시·군 담당부서(읍·면· 동) 홈페이지, FAX, 방문 (시, 군에 따라 다름)	시·군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부서
제주도	'19. 1. 1.		- 제주도청 일자리과 방문 또는 FAX(064-710-4420) 신청	제주도청 일자리과 (064-710-3794)

- 50명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료 보험료(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지원

지자체	지원 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경상 남도	'2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경남 소재 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이고 '21. 1. 1. 이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21년 이전 경남 거주자) ◦ (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미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의 20% 지원(고용, 연금 제외), 1명 한도 제한(사업주 부담금 월 최대 2.2만원, 근로자 1.5만원) - (10~50명 미만): 4대 보험료의 50% 지원(사업주 월 최대 11.6만원, 근로자 최대 9.8만원)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지원사업안내 사업공고▶「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서식 다운▶(온라인) 메일 접수, (오프라인)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등기 접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055-212-6776)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보험 구분	지원 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경상 남도	고용	'18.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등급 - 보험료 30%(3년) 	경남도청 홈페이지▶도정소식▶공지사항▶검색창에 「2021년 1인 자영업자」 검색▶사업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방문, 전자메일, 등기우편, 팩스 (055-211-3419)	경상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6)
	산재	'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등급: 보험료 50%(2년) • 5~8등급: 40%(2년) • 9~12등급: 30%(2년) 		
대 전	고용	'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등급(신규가입자) - 보험료 30%(2년) 	대전비즈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서식 다운▶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042-380-3082)

서울시	고용	'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등급 - 보험료 30%(3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사업안내▶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하단 신청하러가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서울다산콜센터(02-120)
강원도	고용	'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등급: 보험료 40% • 3~4등급: 50% • 5등급: 70% • 6등급: 60% • 7등급: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지원정책▶지원사업신청▶사회보험료 지원▶안내내용 상세보기▶신청하러가기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033-249-3933, 3929)
	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등급: 보험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소재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청 일자리부서 우편 신청 	
경기도	고용	'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등급 - 보험료 30%(3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 신청하기▶2021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하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031-303-1673)
부산시	고용	'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등급: 보험료 30%(3년)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기타지원사업▶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지원신청	부산신용보증재단 교육컨설팅팀 (051-860-6728)
	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등급: 보험료 50%(3년) • 5~8등급: 40%(3년) • 9~12등급: 30%(3년) 		



전라북도	고용	'20. 3. 1.	• 1~7등급: 보험료 30%	전북도청 홈페이지 ▶ 검색창에 「1인 자영업자사회보험료지원사업공고문」 검색 ▶ 서식 다운로드 ▶ 팩스 (063-280-3259), 전자메일, 방문(민원실 내 소비생활센터)	전라북도청 일자리 경제정책관 (063-280-3257)
	산재		• 1~12등급: 보험료 50%		
충청남도	고용	'20. 1. 1.	•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고용사업주 - 보험료 30% (예산소진 시까지)	충청남도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소상공인지원 ▶ 「2021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서식다운로드 ▶ 전자메일, 우편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콜센터 (041-424-4000)
울 산 시	고용	'21. 1. 1.	• 1~7등급 - 보험료 30%(3년)	울산일자리재단 방문 접수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 (052-283-7930 ~1)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 1~2등급 50%(5년), 3~4등급 30%(5년), 5~7등급 20%(5년)

□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기사 부담분) 지원

지자체	보험 구분	지원 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경기도	산재	'21. 1. 1.	• (대상) 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 받는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기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13개 업종 중 퀵서비스업종 • (지원) 특고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경기도에서 지원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 잡아바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 일자리지원팀 (☎ 031-270-9791, 9854, 9728, 9672)